

「(가칭)설계공모의 기술(매뉴얼)」 서면 자문의견서

기본 디자인 관련

c, d 따라갈 때 블루와 다크그레이가 확정일 경우 상세 페이지에서도 색구분, 원색상내 흰색 글씨 따라가는 디자인 확인해 보는건 어떨지

또한 예를들면 목차의 t_계약체결 및 입상작 보상금 지급인데 19page상 플로우에서는 s임

간지 색상관련 : ex) 6page 블루와 그레이 선택은 좋아보이나 그레이톤이 더 밝은 것이 나올것임

p9, 12, 13 : 의미없는 숫자나열로 혼선 ex) 제안공모 3 > 페이지를 지칭하는것도 아니고 헛갈림 빠던지, 관련된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기록하던지, 관련있는 페이지와 a~s로 구분된 기호를 같이 명기하던지 예를들어 핵심 내용중 하나인 23p 주2)를 따라가게 명기하는 방법 등 고려
p10,11에는 숫자는 또 없음. p9의 1~5 연번이 오히려 헛갈리게 함

p12 : 공모 참여자의 부담 경감이나 심사 공정성 부분에 디지털심사 / 공개심사 내용 언급 불필요? 전국단위 안내 문이므로? 참고 작은 글씨로 넣을 필요도 없는지?(14p나 이후에 있기는 함)

p13 : 현재 프로젝트 서울 웹사이트 관리자 게시판상에는 심사 결과 실명 공개 관련 공개 혹은 비공개 선택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가 맞는지. 맞다면 관리자 웹사이트 개편 고려

p16 : 해상도 떨어짐.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 메인 웹주소, 프로젝트 서울, PROJECT SEOUL 큰 텍스트로 디자인? 영문 페이지 함께 캡처 활용등 고려. 심사위원 프로필등 영문 내용 빈약한 경우도 많음. 영문 페이지의 캡처 삽입만으로도 독자들이 여러 인지,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

P19 : a와 t 범위 밖이라도 표시? 1,2,3은 위계를 달리한 크기 폰트는?하부 2 ~24는 week로 인지가 잘 안됨

p22 : 주1)~3), p23에는 주1)~4)

p23 : 사전준비 혹은 사전단계쪽에 과업내용서(안) 확보 후 진행 추가하는건 어떨지, 기술심사라는 용어 기술검토, 기술심사위원, 기술검토위원, 기술위원 등등의 혼선. 명확히 할 필요 있음. 공모지침서 뿐 아니라 프로젝트서울 웹사이트 기본 셋팅도 함께 통일 결정 필요

p27 : Professional Advisor 이 공식 영문 표현? 영문 지침서상 앞으로 Professional Advisor? 설계공모 단계에 한글명은 구분되어 볼드체로 명기되어 있기는 함. 하단에 설계 및 공사단계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? 그림)공공건축 관리자의 사업 단계별 참여 역할 ---> 매뒤 별도 그림 리스트 없다면 그림) 삭제
p46에는 그림)이라고 안되어있음

p35 : 심사위원은 출신학부를 확인 가급적 겹치지 않게.... 추가해야하지 않은지. 불필요 언급 내용? 비교려 사항?
> p118에 명기되어있는 것 확인함

p40 : 사전간담회는 공고전 권장이라고 기록되어있는데 간담회 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라는 자료에 질의응답서가 들어있음

p42 : 업무내용중. 과업지시서 등 제공자료 준비... 사업부서마다 내용이 과업내용서 혹은 과업지시서 두 개 혼용 사용중.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기준 있었으면 함 / 영문 번역 관련 자치단체 지정 감수 추가 언급 할 것인지 판단하기 바람

p53 : 제출서류의... 파일명.... PIN 번호-document.zip (타 샘플작성에서 언더바를 일반-로 잘못 작성해둔것입니다. 다른 파일명들과 같이 언더바 _ 로 수정 권장

p54 : 기술심사? 기술검토?

p55 : 글씨체는... (국문-나눔고딕)... 예:로 표기? 나눔고딕보다 나눔바른고딕 추천

p56 : 장비 현황에 프린터는? 지난 3월 23일 디지털심사장에 canon 소형 프린터 한 대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, 용역업체가 놔두고 간 것인지. 아니면 최근 구비한것인지. 외부 노트북등 인터넷 접속 제한 고려 심사위원 의견서등 현장 출력을 고려 구비되어있지 않다면 구비하는 것은 어떨지. 구비한 것이라면 장비 현황에 명기

p57 : 시간 카운터 표시 모니터 명기? 본 안내 책자가 설계자들에게도 접근될 확률이 높으므로 발표 / 질의응답 시간 표시 모니터 인텍스 추가하는것도 고려

p58 : 기술심사 준비에도 p60의 서약서, 확인서... 등등 표기 혹은 p60 업무내용중 위촉동의~ 와 동일을 따라가게 하는 방법 등 고려.

p64 : 공모안 발표 _ 공모안 당 30분? 권장? 1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? 팀간 교체 5분 포함 30분 의미?

p66 : p13상 개선사항에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라고 적혀있는 부분과 투표제의 경우 심사위원별 실명은 비공개로 함이라고 되어있는게 혼선을 줄 수 있어보임. 본 페이지에서 심사위원별 실명을 비공개 라고 하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의 내용을 의미하고 p67 추가 내용 인식후 심사 의견 웹페이지 게시는 실명 공개를 뜻하는 것으로 곱씹어봐야 추정 이해가 됨

p69 : 시상식에 PA 참석 ? 필요시?

p98 : 질의 응답 > 질의응답

기술 검토 > 기술 심사? 정확한 명칭 통일 주의. 만약 기술 심사로 간다면 프로젝트 서울 기본 베이스 수정 필요

p99 : 패넬레이아웃 삽입 권장 / 과업내용서.. 과업지시서.. 과업내용서? 혼용해서 쓴다면 본 책자 내에서라도 통일

p101 : PIN 번호-document.zip > 언더바로 수정

설계설명서를 아예 빼는걸로.... 프로젝트서울 기본 구성 수정 필요.. 제출하지 않는다는 반복적인 문구 삽입 부적절

p102 : 나눔바른고딕 추천

p103 : 기술 위원회... 기술 검토... 앞에서는 기술 심사... 기술 검토서.... 기술심사서? 통일바람

p106 : 표 상의 배점을 중요도로 수정 권장. 채점제가 아닌 투표제에서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준 테이블이니 배점보다는 중요도 정도가 적절해 보임

p107 : 보상비 비율 근거를 작게라도 명기해주면 사업주관부서나 관리용역사 도움될 듯 함
보상비 비율관련 앞쪽 본문에 추가 삽입하는 것 고려. 기준 비율과 근거. 조정 가능하다... 내용 등등

** 제공자료중 서식 레이아웃 관련 추가 기재 권장

심사의 용이성과 최소 기준이 되는 기준 도면들의 스케일, 배치 방식등을 운영위원회의에서 사전 검토 확인하여
향후 본 심사시 너무 많은 다양한 개별 구성에 의한 비교 혹은 혼선을 줄이는 방안으로 내용 삽입 혹은 맨뒤
참고 서류쪽에 삽입 고려
추가로 각종 서식 샘플 (내용 확인 할 수 있도록)도 추가하는 방안 고려

** 본 책자 폰트 관련 :

만약 윤체나 기타의 유료 폰트 사용의 경우 작성한 용역 업체 정품 구매 여부 문제는 용역업체 귀책사유이므로
별도 확인 할 내용은 아닐것으로 짐작되나 본 책자는 서울시 발간 자료로 등재될것으로 추정되는바
비상업적 용도...등등 임에도 서울시가 폰트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수고 많으셨습니다.

전국단위의 여러 사업부서와 설계참여자들에게 프로세스 이해와 실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2020. 3. 26

나 승 현  (인명)